

“모처럼 바깥 나들이...신나기만 해요”

수원 포교당, 장애우와 함께 화성순례

“모처럼 바깥 나들이를 하니깐 좋네요. 교통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난 뒤로, 엄두도 못 냈는데... 신나기만 합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정홍만 씨(42, 지체장애2급)가 말했다.

20일 수원포교당 불교화생회(회장 신동훈)가 창립34주년과 제2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원 지역 장애인 200여 명을 초청, 수원 산성 순례 자리를 마련했다.

10시, 장애인들은 낯은 날씨에 머뭇거리지만 오늘 만큼은 길을 나섰다. 바라보는 데만 만족했던 수원산성을 밟아보고 싶어하였다. 오르막에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내리막에선 내딛는 발걸음이 벅했다. 그래도 표정만은 즐겁다.

“10년 전 과로로 갑자기 쓰러져 몸 왼쪽이 마비됐죠. 손과 발이 패주는 학생들이 너무도 고맙네요. 평소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산에 오를 수나 있었겠어요?” 최민호 할아버지(62)는 부축해주는 준이(15·동수원중2)가 오늘은 발이 피

어준다며 기뻐한다.

40여 분쯤 지났을까. 험겨워 길가에 주저앉은 송명옥 할머니(67)가 눈에 띈다. 학생들이 할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연신 “괜찮아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잠시 쉬었다 가면 돼, 오랜만에 걸어서 그런가 봐’라며 학생들의 손을 되잡는다.

이어 점심시간을 겸한 장애인 한 마당 시간. 몇몇 장애인이 가수 뽀빠이 노래를 부르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다. 수원포교당 연꽃어린이 팽플러반이 ‘반갑습니다’를 공연하고, 연이은 노래자랑에 화생회원들과 장애인들이 어울려 춤을 춘다. 이날은 스님, 장애인, 불교화생회원을 모두가 하나가 됐다. 장애라는 굴레를 벗어던져 버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서로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스님은 “장애인의 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철우 기자



◇수원산성 나들이에 나선 수원포교당 불교화생회원들과 장애인들. 봄비를 맞으면서도 환한미소를 짓고 있다.

파병찬성 불자국회의원 봉축행사 초청만대

반전평화 불교대책위가 봉축위에 ‘파병 찬성’ 불자 국회의원들을 봉축행사에 초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실전불교전국승가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불교계 16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 불교대책위는 2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앞에서 전달한 호소문에서 “이러한 전 한국군 파병 문제는 국의 차원뿐 아니라 정의와 자비의 문제”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 실은 배 띄워라”

5월6~8일 한강연등제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한강이 연등으로 수놓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불교TV와 불교TV문화원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강에 연등으로 장엄한 배를 띄우는 ‘한강연등제’를 연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전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는 배 위에 설치한 15m의 탑에 발원을 담은 연등을 달아 한강에 띄우는 것이다.

한편 ‘한강연등제’에 연인들을 신청하는 불자들에게는 영화 ‘동승’의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02)6000-7777

여수령 기자

울진 속사댐건설 백지화 될듯

환경부, 왕피천 연내 생태보전구역 지정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 수행환경침해 논란을 빚어온 속사댐 건설이 왕피천 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으로 백지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최근 왕피천 유역을 올해 안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이 규제돼 속사댐 건설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불교계에서는 왕피천에 속사댐이

건설되면 불영사에서 직선거리로 1k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수행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건설을 반대해왔다.

환경부 이유의 사무관은 “왕피천 유역이 대부분 국·공유지여서 지역 주민들의 등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속사댐 건설 백지화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 왕피천의 중류를 막아 118m 높이의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남동우 기자

고양 세계꽃박람회...꽃으로 활짝 핀 ‘3층탑’



2003 고양 세계꽃박람회 24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막됐다. ‘꽃과 인간의 환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꽃 박람회는 5월 8일까지 지속되며 국내·외 38개국 241개 업체가 참가,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꽃과 화훼기자재 등을 총망라하는 세계 화훼인의 한마당 축제로 진행된다. 사진은 박람회장 앞 사거리에 3층탑 모형의 꽃탑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TV, 봉천동 시대 개막

20일 무상사 개원 대표이사에 성우스님

불교텔레비전(회장 성우 스님)이 20일 봉천동 새사육의 무상사 개원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봉천동 시대를 열어나간다.

이날 점안식에는 조계종 원로위원장 석주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언덕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TV는 이번 사육 이전을 ‘제2의 개국’으로 삼아 질적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교TV 새사육은 연건평 125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다. 불교TV는 25일 제42차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에 성우스님을 선출했다.

여수령 기자

경부고속철 대안노선검토위 2차 실무회의

명칭문제 등 입장차이 못 좁혀

경부고속철 대구-부산간 대안노선 검토위 구성과 관련한 2차 실무모임에서 대안노선검토에 참여할 전문가의 범위에 대해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명칭문제 등 원론적인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고속철 시민·종교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은 21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고속철 2단계 구간 노선 재검토를 위한 2차 실무회의를 갖고 재검토위의 명칭과 운영기간, 운영위원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건교부와 대책위는 교통 경제 환경분야 전문가 6명, 정책위원 4명 등 10명의 운영위원을 각각 추천해 20명의 위원과 위원장 등 모두 21명으로 재검토위를 구성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위원장은 양측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해 합의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또 재검토 위 운영기간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검토위의 명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대안노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

는 대신 명칭을 ‘노선 검토위원회’로 하자”는 건교부측의 제안에 대해 시민종교대책위는 “명칭을 ‘대안노선 검토위원회’로 해야만 재검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천미희기자

재가연대 영문홈피 오픈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영문 홈페이지(www.buddha21.org)를 오픈했다.

재가연대 국제협력위원회는 22일 재가연대의 활동 및 한국 참여불교운동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해외 참여

불교 단체와의 연대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재가연대의 비전과 사명, 역사, 부설 기관, 조직도, 회원단체 및 임원진, 활동, 이수 및 활동, 논평, 성명서가 게재돼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신촌,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새만금 방조제 즉각중단하라

수경스님등 갯벌생명파괴 참회 행사

삼보일배 28일째인 23일 부산 해운대 상인대, 문규현 신부(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대 대표), 김경일 교무(새만금 생명살리는 원불교사람들 대표), 이회운 목사(기독교생명연대 사무처장)를 격려하기 위해 4개 종교인들이 모였다.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스님,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 진월스님 등 4개 종교인 300여명은 “새만금 갯벌 생명파괴 참회의 날” 행사에서 “농지확보를 위해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은 이미 실패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며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서영스님도 행사에서 불교 메시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지금 당장 생명살림에 기초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도 19일 삼보일배단을 방문, 종단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남동우 기자

“행복한 삶을 위한 노니”

LOVE-IN NONI 러브인노니

노니(noni)란...

노니는 어떤 열매인가요?
노니는 2000년동안 민간 요법으로 애용되어온 열대과일 노니를 100% 원액으로 만든 건강하게 살고싶은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노니(Noni : Morinda Citrifolia)는 2000년 동안 화산성 토질의 폴리네시아, 피지, 남태평양 군도, 티티티(Tahiti), 하와이,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서 알로베라, 켈프, 파파야 파크노제놀과 함께 민간요법의 전통 약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노니의 학명은 모린다 시트리폴리아(Morinda Citrifolia)로 인도에서는 인도 뽕나무, 중국에서는 바지탄, 카리브 해안 지방에서는 진통계 나무, 호주에서는 치즈 과일, 타이티에서는 노노, 하와이에서는 노나라 불리며, 한국의 동의보감에는 해파극(海巴戟) 또는 파극천(巴戟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니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노니는 오랜 세월동안 폴리네시아인들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해 온 전통 약제로 저희 회사의 Bula Noni는 가장 최후의 청정 지역인 피지의 천연 야생 노니로 만든 100% 원액 엑기스입니다. Bula Noni는 열처리 방식이 아닌 전통 숙성법에 의해 생산되므로 영양분 손실이 없는 최고의 원액 100%입니다. 유황 성분이 풍부한 화산 주변에서 자생하는 노니가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Bula Noni는 화산이 많이 분포하고 국토의 80%가 열대 우림 지역에 속하는 피지의 무공해 천연야생 노니로 만들어집니다.

Bula Noni는 proxeronine의 중요한 성분과 proxeronine로 부터 xeronine를 공급하는 효소를 포함하는 알칼로이드의 활동적 양성인 XERONINE의 자연스러운 생산을 돕습니다.

노니는 정말 100% 원액인가요?
노니는 원래 그 맛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즙과 섞은 제품이 많이 있지만 Bula Noni는 인공감미료나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원액 100%엑기스만을 생산합니다. Bula Noni는 순수 100% 엑기스이기 때문에 질병에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Bula Noni는 건강하게 살려는 모든 현대인들이 일반 음식으로 부터 취하기 힘든 Xeronine이란 성분과 기타 인체의 면역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각종영양 성분의 섭취에 필요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노니는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관절염
- ◇이토피성피부염
- ◇당뇨
- ◇위장질환
- ◇고혈압 두통 및 등증
- ◇암
- ◇알레르기성 비염
- ◇불면증
- ◇간질환 신장병
- ◇갱년기 장애

※ 궁금하신분 저님들은 문의해 주시면 평생껏 상담어드립니다.

총판, 대리점, 주부사원 모집

러브인노니 코리아 상담 : 02)534-9264 www.loveinnoni.com